녹지 않은 朴心, 고심 키운 MB

李-朴 회동 복당 등 실질적 성과 없어…'국정 협조자' 수준 유지

박근혜 호주·뉴질랜드 방문 출국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일 낮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 1월 이후 100여일 만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10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최대 관심사는 친박 탈당인사의 복당 문제와 정치적 동반자 관계의 회복 여부였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두 시간 가까운 회동에도 불구, 국정과 복당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정 동반자 관계 회복 어려울 듯=두 사람은 쇠고기 파문 등 각종 현안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청와대 측은 그동안 쇠고기 파문의 근저에 이념적 배후세력이 있다는 시각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 일이지 이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박 전 대표는 회동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나라일이 잘 되도록 하기위해 도와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했으나 저는 제가 판단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 대통령이 말을 안해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정에 대한 인식이 공유될 경우에 한해 동반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차기대권을 노리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 집권 초기부터 위기에 봉착한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실정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 뒤 "서로 기탄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써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국정의 협조자로서 의지를 밝힌 것은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국정의 동반자' 대신 '국정의 협조자'라는 표현을 쓴 것도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친박 복당 이견 여전=복당 방식에 있어서도 양측의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 대통령이 "친박인사들의 복당에 거부감이 없다"고 말할 때까지만도 친박인사들의 복당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항상 강조하던 조건 없는 일괄복당 방식에 대해 두 사람이 의견차를 보이면서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회동 후 "일괄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 친박계 인사는 "단독 회동의 결과치고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보인다"며 "이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11일 오후 9박10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쇠고기 막혀 FTA 비준 지연될듯

野 "쇠고기·FTA 연계" 與 "FTA 발목잡기 우려" 대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 충돌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휴일인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한미FTA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 비준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미FTA 비준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을 FTA 비준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17대 국회 임기 중에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FTA 비준은)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FTA 비준을 미뤄온 것은 쇠고기 문제때문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덜렁 한미 FTA를 처리하자고 하면 쇠고기 재협상의 길이 막혀버리고 아무런 수단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해) 아무것도 안 하고 18대 국회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그냥 넘길 수 없다"며 "모든 대화를 안 하고 협상을 단절하면 정국경색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 FTA 비준안 논의와 개원협상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한미FTA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3일 원내대표단·통외통위 위원 2차 연석회의와 '쇠고기협상 장관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하고, 이날중 야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도 열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 헌법소원 및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재협상 문제가 풀려야 한미FTA 비준 논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쇠고기 문제와 한미FTA 분리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미FTA 비준안이 이번 임시국회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쇠고기 · FTA' 연계 방침을 "경제 발목잡기"라며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사교류로 당·정 엇박자 해소하나

한나라, 장관 보좌관-당 전문위원 교류 추진…'자기 사람 챙기기' 비판도

한나라당은 최근 쇠고기 문제 등을 둘러싼 당정간 엇박자 해소와 당의 정책능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했으나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1일 "당정 간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무적 감각을 갖춘 사무처 출신의 당료를 정부에 파견하고, 고위 공무원을 당 정책분야에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당정간 유기적인 정책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각 부처 장관의 별정직 정책보좌관 35자리 가운데 공석인 10곳에 1~4급 직원을 파견하고, 정부에서는 같은 숫자 만큼의 2급이상 고위 공무원을 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열지 않더라도 당 방침을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고, 정부도 당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가 쉬워져 유기적인 당정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정부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키로 한 것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감세법안 처리, 교육 자율화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이 생길때마다 유기적인 협조 보다는 당정간 파열음으로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사무처 요원들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파견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과 장관의 정책능력을 전문적으로 보좌한다는 보좌관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오 "장수는 전장을 떠나지 않는다"

美 연수 계획 접을 듯

총선 낙선후 지리산에서 은둔생활을 해온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11일 "패장은 군말을 하지 않듯이 장수는 전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지리산을 하산해 귀경한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편지글을 통해 "산은 내게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 그냥 그대로 이재오로 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혀왔던 그는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올랐을 때 경험한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를 예로 들며 "정상은 언제나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비록 낙선의 아픔을 겪긴 했지만, 임기 초반부터 위기를 맞고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있다. 당초 그는 지리산을 다녀와 6월초에 미국으로 연수를 떠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연수를 포기하거나 다소 연기하려는 생각을 하고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주변 핵심 측근들은 이 의원이 당분간 정치 현장을 멀찌감치 떠나 재충전하는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의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인생역전 개강 5월 1일 첫진도 주/야간반 모집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227-9600
FAX:227-9500

= 합격률 전국 1위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 현대적 학습시설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과학적 평가시스템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 · 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롬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매월초 주·야 (첫진도 시작반)
합격을 원하신다면 싼 수강료, 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교육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수강료 50% · 80% 환급 사전 접수바람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옆 도영빌딩
북구점 ☎529-8111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대한일보 옆 청송빌딩 6층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성황리 강의중)=
7·9급 공무원 완전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 보건직 전남23명, 전북16명 9月27日, 경기56명 8月2日, 서울29명 (열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전남: 제1회 공·경 9月27日 209명
◉경기: 제2회 635, 전북119명 공채
◉서울: 교행6월말 일행 7.20. 1,133명, 기타 8.17. 656명
개강 5월15일(주·야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수강 회원모집
◉6개월 (준)회원 80만원
◉1년 (정)회원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십시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